

식생활과 의생활영역의 가사노동 상품대체와 그 영향요인

The Market Goods Substitution of Housework and the Determinants on it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강 사 구 혜 령

교 수 이 기 영

Dept. of Consumer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 Koo, Hye Ryoung

Professor : Lee, Ki Young

〈목 차〉

I. 서론

II. 선행연구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status, time pressures, resources related with implementing housework), attitudes toward goods characteristics, and the level of market goods substitution of housework in the domain of foods and clothes.

For empirical analysis, the data of the study was collected from 572 married women living in Seoul.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using LISREL.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Individual's characteristics, attitudes toward market goods characteristics, and the level of goods substitution of housework had causal relationships.

2) Generally, wife's age and resources related with implementing housework were negative predictors of the level of market goods substitution of housework and wife's education, income, time pressures, attitudes toward characteristics of market goods were positive predictors. Wife's employment was a constraint of Korean traditional sauce, clothes repairing service and laundry service purchases, but a facilitator of the level of dining-out.

◆ key word: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 가사노동 상품대체

I. 서론

행동이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명제는 많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증명되어 왔다. 이를 가사노동의 상품대체현상에 적용해 보면,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가정관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적인 특성이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고,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와 구매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품을 구매한다고 파악한 데서 일부 기인한다고 하겠다. 가사노동을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은 주부가 가사노동시간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사노동을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오직 시간절약만을 위해 가사노동을 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연구자들이 간과한 것이다.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소비재가 싼값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보다 상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격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하기 힘든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이 보다 풍요로워지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이에 가사노동 대체상품에 대한 태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상품에 대한 태도를 여러 차원으로 분류하고, 이 태도가 상품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상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는 개인의 경험이나 요구, 가족의 자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정관리자의 특성에 따라 상품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가사노동에 대한 선호나 수행능력, 표준, 태도 등이 과제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

여(구혜령·이기영, 2000) 가사노동 전반이 아닌 식생활과 의생활영역의 몇몇 과제별로 수행될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본 절에서는 가사노동 상품대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시간제약지각,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를 선정하였다¹⁾.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연령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의복수선이나 세탁과 같은 의복관리를 서비스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지만(정순희, 1993; Weagly & Norum, 1989), 외식서비스의 이용과 장류의 구매, 전반적인 식생활영역의 상품대체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유진, 1995; 이기춘·이은영·이기영·황인경·김민자·김영옥, 1989; 이미선·이정우, 1997). 연령이 적을수록 상품대체수준이 높은 것은 가사노동기술의 부족과 시간 집약적인 자녀양육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2)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가사노동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일관적인 경향을 보인다. 학력이 높을수록 외식의 빈도나 비용이 증가하였으며(문숙재·김혜연, 1995; 백유진, 1995; 이기춘 외 5인, 1989; 정순희, 1993; 조유현, 1994; Yang & Magrabi, 1989), 장류의 구입이나 의복수선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였고(백유진, 1995; 이기춘 외 5인, 1989; 정순희, 1993; 조유현, 1994; Yang & Magrabi, 1989) 편의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숙재·정지영, 1991; 오경희, 1995; 이정숙·이정우, 1995).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수준이 높아지는 이유는, 첫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1) 가사노동 상품대체에 관한 이론과 수준에 관해서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권 3호의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와 가사노동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금전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재화나 용역의 구입을 통해 가사노동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며 새로운 상품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상품으로 대체하여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클 것이다.

3) 취업지위

취업여부와 가사노동 상품대체간의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의복수선을 포함한 의생활영역의 상품대체수준과 냉동식품의 사용은 취업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세정, 1993; 정순희, 1993; Reilly, 1982, 재인용; Reynolds, Crask & Wells, 1977, Yang & Magrabi, 1989). 외식의 경우에는 다양한 결과를 보인다.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외식을 많이 한다는 결과도 있고(문숙재 · 김혜연, 1995; 정연주, 1987), 전업주부의 외식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와(양세정, 1993), 취업여부와 외식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백유진, 1995). 김치를 포함한 장류의 구매수준은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유진, 1995; 정연주, 1987). 또한 취업주부의 전반적인 상품대체수준이 전업주부보다 높다는 결과도 있다(문숙재 · 정지영, 1997; 이은주, 1991).

취업지위와 가사노동 상품대체와의 관계를 보면, 전문직 취업주부가 비전문직 취업주부에 보다 세탁용역을 더 구입하고(이기영, 1987) 시간절약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며(박미은, 1993; 이승미, 1989; 제미경, 1994; 조성은, 1991) 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우경옥, 1991; 이기춘 외 5인, 1989). 반면에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식사준비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라면의 이용정도는 전문직 취업주부보다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가정이 더 높았다(이승미, 1991).

본 연구에서는 취업지위(전문직 취업주부, 비전문직 취업주부, 전업주부)를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상품대체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4) 소득

소득과 상품대체의 관계를 밝힌 실증연구를 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외식의 이용이 많아지고(문숙재 · 김혜연, 1997; 백유진, 1994; 우경옥, 1991; 이기춘 외 5인, 1989; 조유현, 1994; Yang & Magrabi, 1989), 의복수선과 같은 의복관리서비스의 이용도 많아지며(이기춘 외 5인, 1989; 정순희, 1993; 조유현, 1994; Yang & Magrabi, 1989) 편의식품과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였다(오경희, 1995). 저소득층은 기술을 요하는 어려운 과업인 경우에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세탁이나 다림질, 수선가능한 것은 직접하는 경향이 높았고, 반면에 소득이 높은 계층은 화폐절약보다는 전문가의 기술을 고려하여 서비스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았다(김영란, 1989).

김치를 포함한 장류의 구매는 소득수준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1989; 백유진, 1995; 이기영, 1987; 정연주, 1987).

2. 시간제약지각과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

1) 시간제약지각

시간제약을 크게 지각하는 주부일수록 가사노동 상품대체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변수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이은주, 1991; 황의록 · 신영철, 1993). 선행연구들이 '여성들이 취업으로 인해 시간부족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시간이나 노동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상품을 많이 활용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시간제약지각과 상품대체와의 관계보다는 취업여부와 상품대체와의 관계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시간제약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지만(이승미, 1989), 취업주부만이 전형적으로 시간압박감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아니므로 주부의 취업만이 시간압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뒤따른다고 할 수 있다(박영미, 1993; 조영희, 1995). 황의록 · 신영철(1993)은 취업여부보다 가사활동량을 좌우하는 변수, 예를 들어 가족수가 시간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시간제약지각과 가사노동 상품대체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이 갖는 실천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가사노동기술과 가사노동선호를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의 구성요소로 채택하였다.

① 가사노동기술

장이나 김치담그기, 옷만들기나 수선하기와 같이 전통적이면서 시간이나 기술을 많이 요구하는 영역의 가사노동은 최근 들어 중요하게 부각되는 구매나 자녀양육, 관리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나 수행기술수준이 떨어질 것이고, 따라서 상품대체 경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같은 주부라도 가사노동 과제에 따라 기술의 차이를 보이므로, 가사노동 전반에 대한 기술과 상품대체와의 관계를 보기보다는 해당 과제에 대한 기술과 상품대체와의 관계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증적인 연구들은 대개 전반적인 가사노동기술과 상품대체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가사노동기술이 좋을수록 가사노동의 상품대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순재·정지영, 1991; 이기영, 1987; 이은주, 1991).

② 가사노동선호

특정 가사과제에 대해 갖게 되는 호의적인 감정 혹은 비호의적인 감정은 그 과제에 대한 열정과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빈도나 철저함, 수행표준 등과 같은 과제에 대한 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일을 쉽게 또는 어렵게 만들며,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사용과 피로에 영향을 미친다(김외숙, 1981). 이러한 사실은 가사노동에 대한 선호가 가사노동의 수행양식을 규정하는 요인이며, 동시에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해준다.

우리 나라 주부들의 가사노동선호를 조사한 연구(김외숙, 1981)에 따르면 시장보기, 가족돌보기, 관리 등의 일은 좋아하지만, 세탁, 다림질, 설거지 등의 일은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가사노동 과제에 대한 선호와 상품대체와의 관

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는 상품특성에 대해 갖는 객관적인 신념과 그 특성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 개념으로, 크게 품질우위에 대한 태도, 시간·노동절약에 대한 태도, 화폐절약에 대한 태도의 세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태도가 상품대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와 상품대체와의 관계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권 3호의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와 가사노동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구혜령·이기영, 2000)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델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관리자의 특성,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 상품대체수준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구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을 실시하고자 한다. 공분산구조분석은 연구자가 설정한 인과관계에 대한 모델을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석으로, 크게 측정모델과 구조모델로 구성되어 있다(조선배, 1996).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에 대한 설명이 <표 3-1>에 제시되어 있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3-1>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조사도구의 작성

가사노동 상품대체,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는 가정관리학회지 18권 3호의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와 가사노동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구혜령·이기영, 2000)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1) 시간제약지각

시간제약지각은 일반적인 시간제약지각과 가사노동 시간제약지각의 두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일

〈표 3-1〉 모델에 이용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잠재변수	측정변수
주부의 연령 ($\zeta 1$)	주부의 연령 (X1)
주부의 교육수준 ($\zeta 2$)	주부의 교육수준 (X2)
비전문직 가변수 ($\zeta 3$)	비전문직 가변수 (X3)*
전문직 가변수 ($\zeta 4$)	전문직 가변수 (X4)*
소득 ($\zeta 5$)	가계소득 (X5)
시간제약지각 ($\eta 1$)	일반적인 시간제약지각 (X1)
	가사노동 시간제약지각 (X2)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 ($\eta 2$)	가사노동능력 (X3)
	가사노동선호 (X4)
상품의 품질우위에 대한 태도 ($\eta 3$)	요인1(Y5)
	요인2(Y6)
	요인3(Y7)**
상품의 시간·노동절약에 대한 태도 ($\eta 4$)	시간절약에 대한 태도 (Y8)
	노동절약에 대한 태도 (Y9)
상품의 화폐절약에 대한 태도 ($\eta 5$)	화폐절약에 대한 태도 (Y10)
상품대체수준 ($\eta 6$)	상품대체수준 (Y11)

* 비전문직 가변수는 비전문직 취업주부에게 '1', 기타에 '0'을 부여하고, 전문직 가변수는 전문직 취업주부에게 '1', 기타에 '0'을 부여하였다. 전업주부가 기준변수가 된다.

** 의생활영역의 경우, 상품의 품질우위에 대한 태도는 요인1과 요인2의 두 측정변수에 의해서만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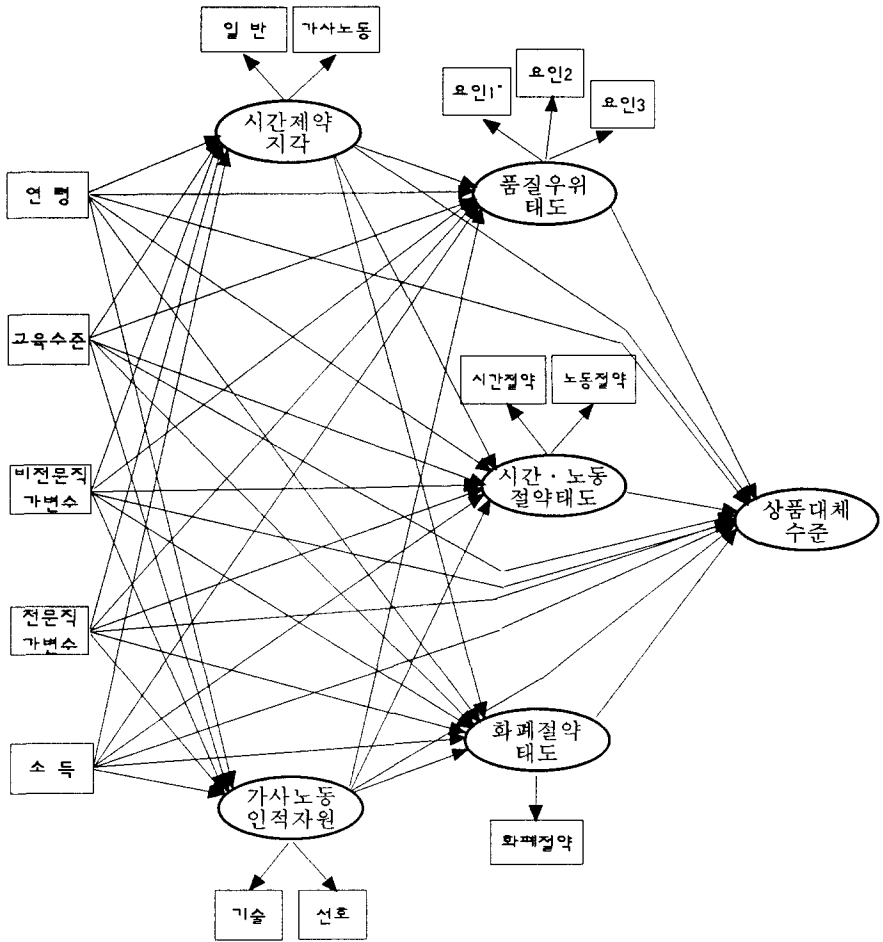
반적인 시간제약이란 시간부족, 바쁘다는 느낌의 정도나 시간에 대한 부담감의 정도, 가사노동 시간제약은 주부가 각 가사과제를 직접 수행하고자 할 때 느끼는 시간부족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시간제약지각 척도는 시간부족, 바쁘다는 느낌의 정도가 시간에 대한 부담감의 정도를 묻는 5문항으로 연구자가 구성하였고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시간제약지각 척도는 식사준비하기, 김치담그기, 밀반찬 만들기, 의복수선하기, 다림질·세탁하기 등의 5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 느끼는 시간부족정도를 묻는 5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90 으로 나타났다.

2)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은 가사노동선호와 가사노동기술의 두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가사노동기술은 가사노동에 대한 지식의 응용 및 경험을 통한 숙련에 의해 특정한 가사과제를 달성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가사노동선호는 특정한 가사과제에 대해 갖게 되는 호의적인 감정 혹은 비호의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가사노동기술 척도는 장류 만들기, 김치만들기, 식사준비하기, 각종 밀반찬 만들기, 의복수선하기, 세탁 및 다림질하기 등의 식생활과 의생활영역의 6 가지 과업의 수행기술에 대해 응답자가 평가한 결과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아주 잘한다'에 5점을, '아주 못한다'에 1점을 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사노동선호 척도는 가사노동기술 척도에 포함되었던 6가지 과업의 수행에 대한 응답자 선호를 평가한 결과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아주



〈그림 3-1〉 가사노동 상품대체의 구조방정식모델

* 식생활영역의 경우 품질특성을 구성하는 측정변수인 요인1 요인2, 요인3은 맛, 영양, 위생이 되고, 의생활영역의 경우 요인1과 요인2는 서비스제공자의 솜씨와 신뢰가 된다.

좋아한다'에 5점을, '아주 못한다'에 1점을 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사노동 과제에 해당하는 가사노동기술과 선호가 분석에 이용되므로 6 문항이 하나의 척도로 합해지지 않는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방법

자료는 1998년 10월 20일부터 1998년 11월 18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572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LISREL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4.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가사회학적 특성은 가정관리학회지 18권 3호의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와 가사노동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조사대상자의 시간제약지각정도와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표 3-2〉 참조).

주부들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려고 할 때 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부의 가사노동기술과 가사노동 선호는 가사노동 과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66$).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장류구매 모델

장류구매에 관한 구조방정식모델과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제안모델이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장류의 구매모델로 채택하였다(〈표 4-1〉).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류의 구매에는 주부의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영향을 미쳤고 이들 변수는 전체 분산의 15.3%를 설명하였으며,

이 중에서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과 상품 특성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고, 가사노동을 잘하고 좋아하는 주부일수록 장류를 덜 구매하였고, 비전문직 취업주부와 전문직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소득이 많고 시간제약이 큰 주부일수록 장류를 더 많이 구매하였다. 또한 상품의 세 특성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주부일수록 장류를 많이 구매하였으며, 이 세 특성에 대한 태도 중에서는 상품의 품질우위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2. 반조리식품 구매모델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과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제안모델이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평가되어 이를 반조리식품구매모델로 채택하였다(〈표 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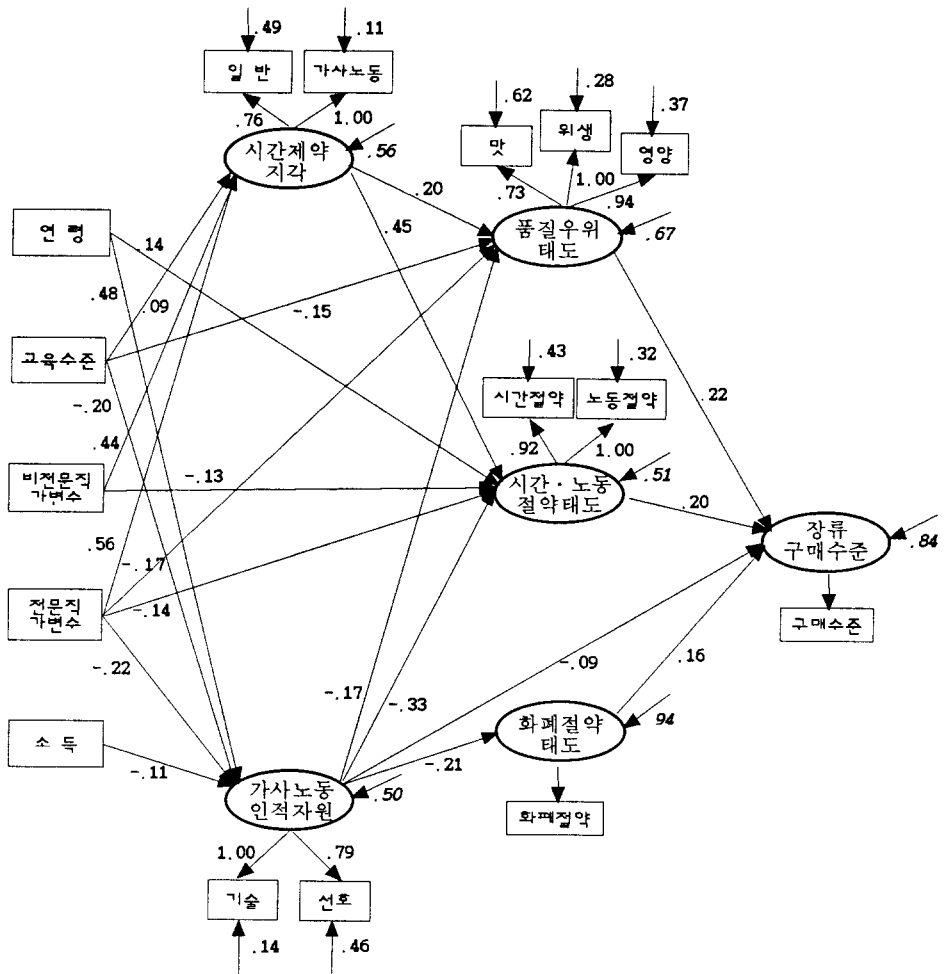
반조리식품의 구매에는 연령, 시간제약지각,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 품질우위에 대한 태도, 시간·노동절약에 대한 태도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는 전체 분산의 15.8%를 설명하였다. 연령이 많으며 가사노동을 좋아하고 잘할수록, 취업주부(전문직, 비전문직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반조리식품을 덜 구매하고, 시간제약이 클수록 구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특

〈표 3-2〉 조사대상자의 시간제약지각과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

변수	평균 (* 점수분포 : 1~5)	표준편차
시간제약지각		
일반적인 시간제약지각	3.36	0.99
가사노동 시간제약지각	2.95	1.09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		
가사노동능력/가사노동선호		
장류 만들기	2.53/2.67	1.25/1.05
식사준비	3.63/3.33	.76/ .83
김치 담그기	3.44/3.08	1.16/ .99
각종 밑반찬 만들기	3.50/3.33	.92/ .85
의복수선하기	2.51/2.62	1.07/ .93
다림질·세탁하기	3.56/2.90	.92/ .87

〈표 4-1〉 장류 구매의 구조방정식모델의 적합도

모델	χ^2	df	P	χ^2/df	GFI	RMRS	NFI	NNFI	AGFI
기초모델	2871.04	120							
제안모델	160.75	80	.23	2.0	0.97	0.04	0.94	0.96	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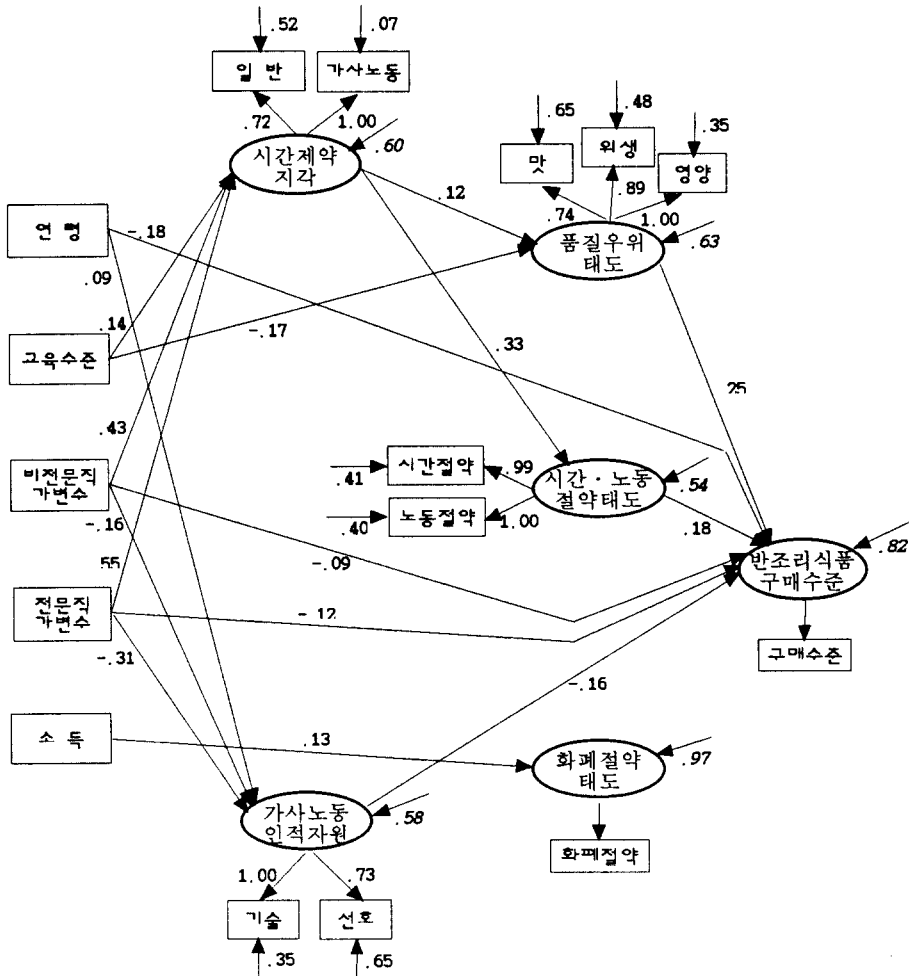


〈그림 4-1〉 장류 구매의 구조방정식모델

* 비전문직 가변수와 전문직 가변수의 경우, 전업주부가 기준변수임.
 *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표 4-2〉 반조리식품 구매의 구조방정식모델의 적합도

모델	χ^2	df	P	χ^2/df	GFI	RMRS	NFI	NNFI	AGFI
기초모델	2171.81	120							
제안모델	164.72	85	.49	1.9	0.97	0.05	0.92	0.95	0.95



〈그림 4-2〉 반조리식품 구매의 구조방정식모델

※ 비전문직 가변수와 전문직 가변수의 경우, 전업주부가 기준변수임.
 ※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성에 대한 태도 중에서는 품질우위특성과 시간·노동절약에 대한 태도가 반조리식품의 구매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반조리식품의 구매수준에는 상품의 품질우위에 대한 태도, 연령, 시간·노동절약에 대한 태도,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 시간제약지각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그림 4-2〉).

3. 완전조리식품 구매모델

구조방정식모델과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이용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는데, 제안모델이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완전조리식품 구매모델로 채택하였다(〈표 4-3〉).

〈표 4-3〉 완전조리식품 구매의 구조방정식모델의 적합도

모델	χ^2	df	P	χ^2/df	GFI	RMRS	NFI	NNFI	AGFI
기초모델	2003.86	120							
제안모델	192.42	78	.00	2.5	0.96	0.05	0.94	0.94	0.93

완전조리식품의 구매에는 비전문직 가변수와 전문직 가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3.0%였고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과 상품의 품질우위에 대한 태도, 시간제약지각, 교육수준, 상품의 시간·노동절약태도, 연령, 상품의 화폐절약태도의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주부의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소득이 많은 주부일수록, 전문직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완전조리식품을 덜 구매하였고, 시간제약이 크고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이 부족한 주부일수록 구매를 많이 하였다.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의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구조방정식모델을 그림을 표현하면 〈그림 4-3〉과 같다.

4. 외식서비스 구매모델

구조방정식모델과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이용하여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는데, 제안모델에서 매개변수로 설정된 화폐절약에 대한 태도변수와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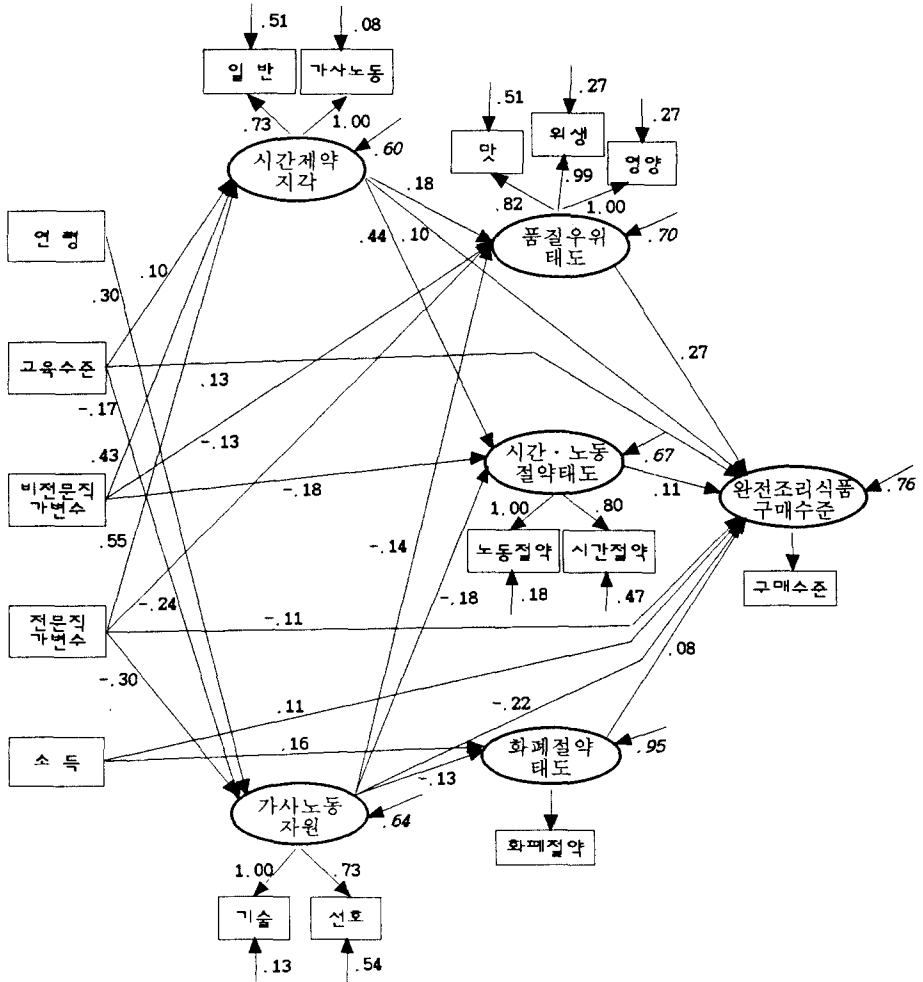
된 모든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아서 이 변수를 제외하고 다시 모델을 추정(수정모델)하였다. 이 수정모델의 구조방정식모델과 측정모델의 적합도가 기준에 부합하고 있어 이를 최종모델로 채택하였다(〈표 4-4〉).

외식서비스 구매에는 연령, 소득, 전문직 가변수, 시간제약지각, 비전문직 가변수, 교육수준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변수들이 전체 분산의 2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소득수준이 높고 시간제약이 크다고 지각하는 주부일수록, 그리고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외식서비스의 이용정도가 높았다.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는 외식서비스 구매에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업주부의 구매가 취업주부에 비해 많다는 점, 다른 상품의 구매와 달리 가사노동기술과 선호,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식생활 영역의 상품 구매와 차이를 보인다.

5. 의복수선서비스 구매모델

구조방정식모델과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이용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제안모델에서 상품의 품질우위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두 변수의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두 측정변수 중에서 영향력이 높은 '서비스제공자의 솜씨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품질우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로 하고 모델을 다시 추정하였다. 이 모델이 수정모델1인데, 이 모델에서는 교육수준이 어떠한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하고 모델을 다시 추정하였다. 이 모델이 수정모델2인데 적합도가 개선되었으므로 이를 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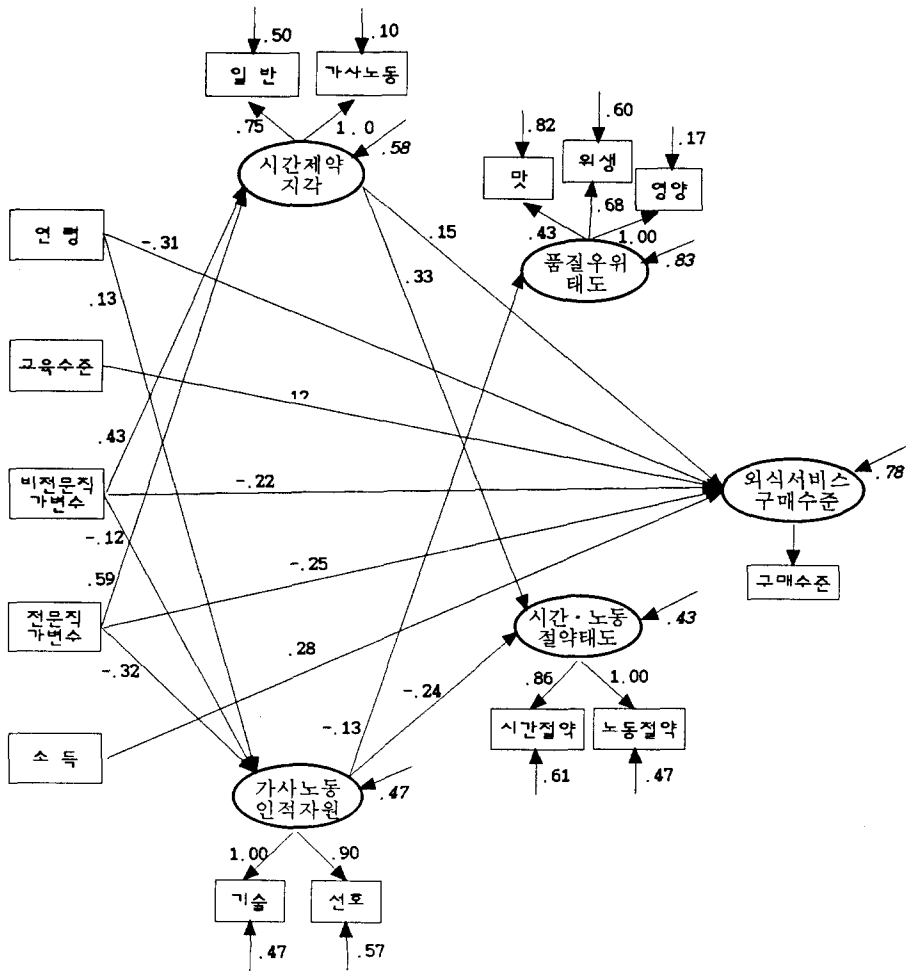


〈그림 4-3〉 완전조리식품 구매의 구조방정식모델

- ※ 비전문직 가변수와 전문직 가변수의 경우, 전업주부가 기준변수임.
- ※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표 4-4〉 외식서비스 구매의 구조방정식모델의 적합도

모델	χ^2	df	P	χ^2/df	GFI	RMRS	NFI	NNFI	AGFI
기초모델	2011.82	120							
제안모델	185.61	85	.39	1.9	0.97	0.05	0.92	0.94	0.94
수정모델	159.11	72	.16	2.2	0.96	0.05	0.92	0.93	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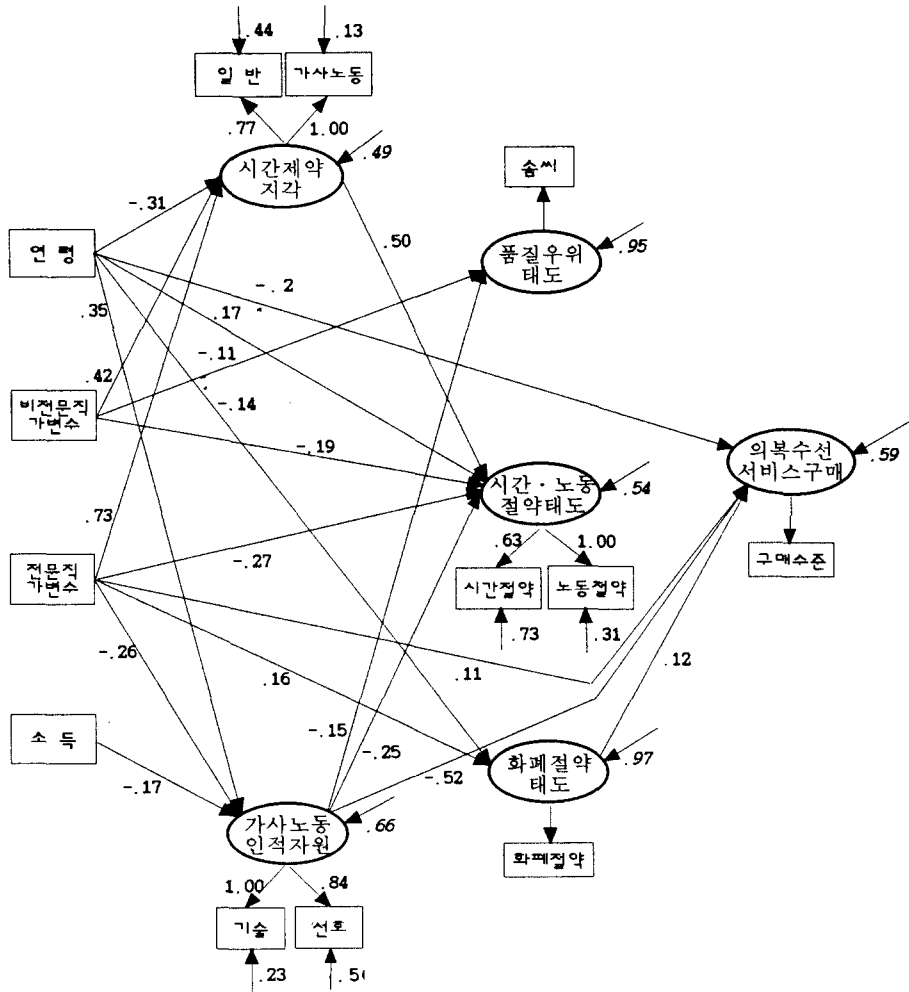


〈그림 4-4〉 외식서비스 구매의 구조방정식모델

- * 비전문직 가변수와 전문직 가변수의 경우, 전업주부가 기준변수임.
- *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표 4-5〉 의복수선서비스 구매의 구조방정식모델의 적합도

모델	χ^2	df	P	χ^2/df	GFI	RMRS	NFI	NNFI	AGFI
기초모델	1886.35	105							
제안모델	154.89	75	0.17	2.1	0.97	0.05	0.92	0.94	0.95
수정모델1	121.73	62	0.00	2.0	0.97	0.04	0.94	0.95	0.95
수정모델2	103.71	47	0.00	2.2	0.97	0.03	0.95	0.95	0.95



〈그림 4-5〉 의복수선서비스 구매의 구조방정식모델

- * 비전문직 가변수와 전문직 가변수의 경우, 전업주부가 기준변수임.
- *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모델로 채택하였다.

의복수선서비스 구매에는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 연령, 전문직 가변수, 상품의 화폐절약에 대한 태도, 소득 순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 변수는 전체 분산의 40.1%를 설명하였다. 전문직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가, 혹은 연령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주부일수록 가사노동을 잘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의복수

선서비스를 덜 구매하였으며, 가사노동을 잘 못하고 좋아하지 않으며 의복수선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드는 화폐비용이 부담스럽게 없다고 여길수록 서비스를 많이 구매하였다.

6. 세탁서비스 구매모델

구조방정식모델과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이용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제안모델에서는 품질우위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두 변수의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두 측정변수 중에서 영향력이 높은 '세탁서비스제공자의 솜씨'라는 측정변수만으로 품질우위에 대한 태도를 구성한 수정모델을 설정하였다. 수정모델의 적합도가 제안모델에 비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최종 모델로 채택하였다.

수 있다. 따라서 주부의 개인적 특성,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 상품대체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가사노동의 상품대체 현상이 상품에 대한 태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특정 변수와 가사노동 상품대체와의 관계를 통해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가사노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주부일수록 가사노동 상품대체 수준이 낮은 것은 가사노동에 대한 선호나 기술이 자원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은 가사노동을 상품으로 대체하는 데 드는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기 때

〈표 4-6〉 세탁서비스 구매의 구조방정식모델의 적합도

모델	χ^2	df	P	χ^2/df	GFI	RMRS	NFI	NNFI	AGFI
기초모델	1712.28	105							
제안모델	194.69	74	0.00	2.6	0.96	0.05	0.89	0.89	0.93
수정모델	128.83	50	0.00	2.8	0.97	0.05	0.91	0.90	0.94

세탁서비스 구매에는 가사노동관련 인적자원, 연령, 상품의 시간·노동절약에 대한 태도, 화폐절약에 대한 태도, 교육수준, 시간제약지각, 취업지위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거나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그리고 가사노동을 잘하고 좋아하는 주부일수록 세탁서비스를 덜 구매하였고, 시간제약이 큰 주부일수록 세탁서비스를 더 구매하였다. 또한 상품의 시간·노동절약특성과 화폐절약특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부일수록 세탁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하였으며, 품질우위에 대한 태도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그림 4-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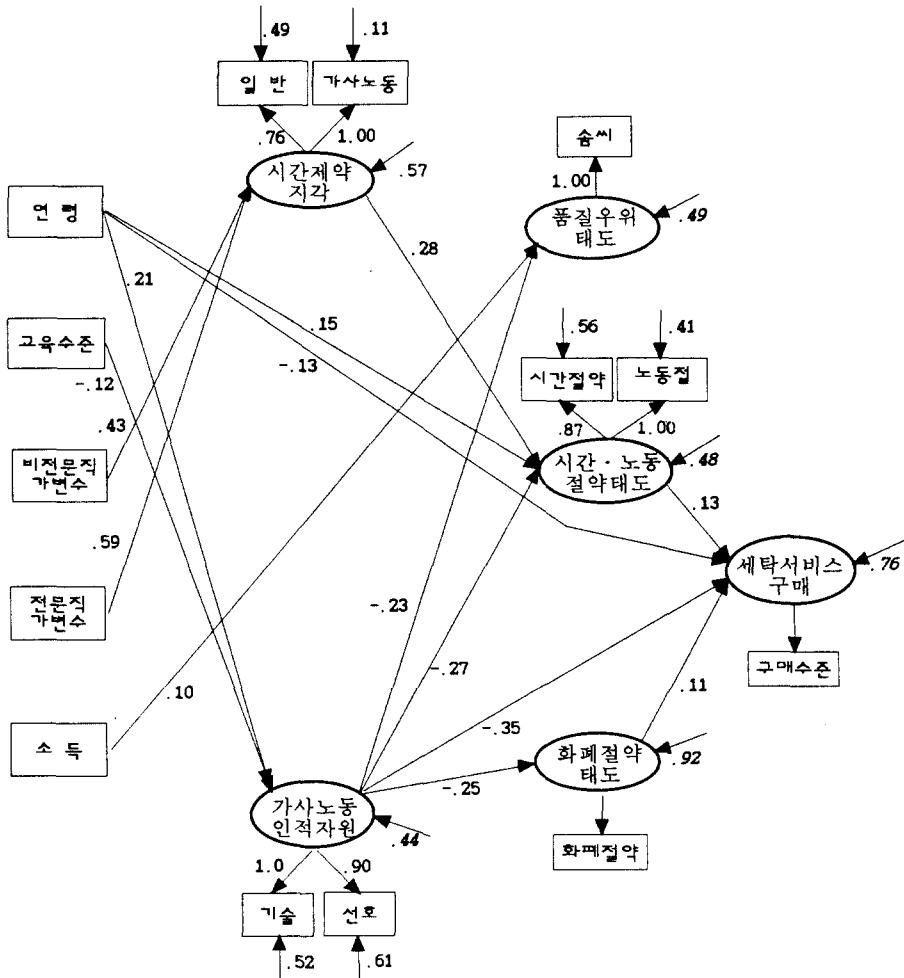
V.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주부의 개인적 특성이 상품대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도 하지만,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를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미치기도 하므로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가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문에 경제적인 보완기능과 동시에 생산적인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가사노동을 잘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수행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경제적인 효용성 극대화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장노동에의 인적자본의 개발 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관련된 인적자본의 형성에도 그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부의 취업지위가 가사노동 상품대체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사실은 취업여부나 직업의 종류에 따라 주부들의 가사노동 수행양식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선 주부의 취업여부는 시간제약지각이나 소득의 유무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수준에 차이를 야기시키는데 이러한 영향은 가사노동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장류와 세탁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하였는데, 장류는 식품의 기본이 되는 필수재이고 세탁은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제약이 큰 취업주부들은 이러한 과제를 상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시간제약을 극복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에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외식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그림 4-6〉 세탁서비스 구매의 구조방정식모델

- ※ 비전문직 가변수와 전문직 가변수의 경우, 전업주부가 기준변수임.
- ※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전업주부의 가족이 외식에 드는 시간의 확보가 더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취업주부라도 직종이나 지위에 따라 가사노동 상품대체수준과 그 영향요인이 달랐다. 시간제약을 크게 지각하는 것은 전문직 주부나 비전문직 주부나 마찬가지로지만 가사노동기술이나 선호수준, 혹은 상품의 화폐절약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인해 가사노동 상품대체수준에

서도 차이를 보였다. 의복수선이나 완전조리식품 구매에서 전문직 취업주부의 수준이 높은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상품대체모델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모델의 적합

도는 우수한 편이었지만 여러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 중 화폐절약에 대한 태도 변수와 의생활 영역의 품질우위에 대한 태도 변수의 설명되지 않은 분산이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 변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류나 반조리식품 구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이 높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혜령·이기영(2000). 상품특성에 대한 태도와 가사노동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51.
- 김영란(1989). 가사노동에 관한 계급별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의숙(1981).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Ⅰ). *대한가정학회지* 19(4), 55-64.
- 문숙재·김혜영(1995). 취업주부의 시간, 에너지, 금전, 심리적 취업비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6), 73-88.
- 문숙재·정지영(1991). 가사노동 서비스영역의 사회화와 그 만족 수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31-152.
- 문숙재·정지영(199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가계의 시간 절약 지출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59-72.
- 박미은(1993). 취업주부의 시간제약지각에 따른 가사작업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미(1993). 주부의 시간압박감에 따른 소비자행동.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유진(1995). 가사노동 사회화와 관련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세정(1993). 주부의 취업이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 연구* 4(2), 17-28.
- 오경희(1995). 청주시 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관련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74-87.
- 우경옥(1991).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의 실태 및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영·구혜령(1997). 가사노동 사회화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33-43.
- 이기춘·이은영·이기영·황인경·김민자·김영옥(1989). 산업사회의 소비자행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2), 115-132.
- 이미선·이정우(1997). 전문·사무직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관리방안 및 가사노동 관리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5(2), 201-216.
-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1991).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이정우(1995).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이 가정관리행동과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4), 129-147.
- 정순희(1993). 미국내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실태와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22-34.
- 정연주(1987). 도시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미경(1994).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요구와 소비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선배(1996). LISREL 구조방정식 모델. 영지문화사.
- 조성은(1991).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희(1995). 도시주부의 지출행동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유현(1994). Factors Affecting Household Expenditures for Services. *대한가정학회지* 32(3), 45-62.
- 황의록·신영철(1993). 시간/노동절약수단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4(1), 109-129.
- Reilly, M. D. (1982).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407-417.
- Weagly, R. O. & Norum, P. S. (1989). Household Demand for Market purchased, home producible commoditie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8(1), 6-18.
- Yang, S. J. (1989). Expenditures for services, wife's employment, and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8(2), 133-147.